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신문사
주소: 전주시 완산구 895신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8월 12일 금요일 (음 7월 10일) 제162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골목경제 활성화, 핵심은 '주민 참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및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생골목 프로젝트'가 제안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11일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에 따르면 정책브리프 '골목경제 활성화 전략, 이야기가 있는 생생골목만들기'를 통해 골목경제의 개념과 사례, 전북 골목자원 분석을 바탕으로 '생생골목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은 도내 골목자원조사 결과 다양한 유·무형 가치를 가진 골목은 총 24곳이 있으며, 골목 내 핵심주체와 상가변형회 등이 골목의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이 보유한 골목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소득 및 일자리 등 경제성과 창출, 지역공동체 복원 등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는 박사(창조경제산업연구부 부연구위원)는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생생골목 프로젝트는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며 주민 체감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생골목 프로젝트 세부사업은 ▲해당지역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골목을 발굴하고 골목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1시군 1대표 생생골목 육성', ▲14개 시군 생생골목을 연계하는 '생생골목 패스라인' 구축, ▲생생골목만



도정 현안 예산확보 활동

송하진 도지사는 11일 서울 정부청사를 방문해 유일호 기재부장관을 만나 새만남내부간선도로 남북2축 건설 등 도정현안사업의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갖고 있다.

1시군 1대표 골목 육성·협의체 구성 등 전북연구원, '생생골목 프로젝트' 제안

들기 사업을 주관하는 '생생골목협의체' 구성, ▲골목의 매력도 증진을 위한 '생생골목 장소만들기', ▲골목경

제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한 '생생골목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제시됐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영세소상공인 지원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제도 마련과 골목경제 활성화 민간네트워크 구축,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민형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 예산 확보 총력전

김승수 전주시장이 국회에 호남의 관문인 전주역사(驛舍)의 전면개선과 세계무형유산포럼 개최 등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11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국민의당)과 국회 예결위원장 김현미 의원(고양정, 더불어민주당), 김동영 의원(전주병), 김광수 의원(전주갑), 국회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인천부평을, 더불어민주당) 등 전북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을 연고로 둔 국회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 국비지원을 요청한 주요사업은 ▲호남의 관문, 전주역사 전면개

선(60억) ▲세계 무형유산포럼 개최(4억) ▲전주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88억) ▲국도 26호선(전진로) 확장(75억)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25억) ▲전주업사이클센터 설치(9.8억) 등이다.

특히 연간 1000만명이 찾는 전주의 주요관광지인 전주역사(驛舍)를 전면개선하는 전주역사 문화재청 한옥으로 전면 신축하기 위한 국비반영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전주역은 지난해 서울역을 제외하고 이용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역이지만 지어진 지 35년이 경과하면서 대합실을 비롯한 내부시설과 주차장 등 각종 제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전면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세계적인 여행안내지인 '레니플래닛'에서 전주를 전 세계 여행객들이 1년 안에 꼭 가봐야 할 아시아 관광 명소 3위로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는 등 전주역을 이용할 국내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국내 229개 지자체 중 지역문화지수 1위이자 대한민

전주역사 전면 개선·무형유산포럼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등 현안 논의

국의 무형문화유산은 보존·계승·발전시켜온 무형문화유산의 보고인 전주에서 세계무형유산포럼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김 시장은 청년비즈니스 드림센터 구축 등 올해 정부추경사업과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재개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의 협조를 구했다. /김영재 기자

***15일 공휴일(광복절)인 관계로 15일까지 신문입니다.

▶ 매일 INDEX

2면 국산 컨테이너 검색기 상용화

4면 부안 염청석산개발 불법 토석 채취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발전의 대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제능과 열정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문직필의 사망감으로 지역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전주매일이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 창의적 사고와 진취적 자세를 겸비한 인재를 초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격 조건
취재지(경력·수습)	본사 0명	일기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의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접수기간 2016년 8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4층
문의전화: 063-288-9700(본사 총무팀)
e메일: jjmaeil1@hanmail.net

전주매일



남자펜싱 김정환이 1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바하 올림픽파크 카리오카 경기장에서 열린 펜싱 남자 개인 사브르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 동메달이 확정되자 환호하고 있다.

2016 리우올림픽 → 관련기사 13면

지역 예술가·시민 위한 전시 무료 대관 공모

전주영화제작소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와 시민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자 '2016 전시 무료 대관 공모'를 16일부터 23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19세 이상의 예술인이 라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공모지원 분야는 회화, 설치 및 조소, 영상, 디자인, 공예, 건축, 의상, 판화, 서예 등이며 단체 및 경력 작가를 우선시 한다. 접수방법은 전주영화제작소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에서 기획 전시실, 참가신청서, 전시 계획서, 작가 이력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theque@jiff.or.kr)로 보내면 된다.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전시 공간(전주영화제작소 1층 기획전시실)과 전주디지털특립영화관 소식지 및 메일링, 보도자료 등을 통한 홍보 지원을 한다. 선정자는 오는 20일 홈페이지 또는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한다. 문의는 063)231-3377. /정해은 기자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제20회 무주 반딧불축제

The 20th Muju Firefly Festival

2016. 8. 27(토)~9. 4(일)

무주군일원 남대천, 반디랜드, 반딧골 전통공예문화촌 등

www.Firefly.or.kr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46
- 문의 063)320-5003-17

2017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2017 Muju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2017. 8. 22일 - 8월 30일)